

<아시아공동체론이란 무엇인가?>

현재 전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조직체인 ‘아시아공동체’는 이론적 단계의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는 워낙 다양한 민족과 광범위한 지역 범위를 갖고 있는 관계로, 로마제국(역사성) - 기독교(종교) - 높은 인구밀도 (지리적 근접성) 등 밀접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조직된 유럽연합과는 달리 공동체 실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은 연구가 가장 활발히 논의 중인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 심지어 다른 대륙(유럽 및 북미)에서도 강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공동체론’이 아시아공동체 설립을 넘어 궁극적으로 ‘세계공동체’ 설립과 전 인류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는 민족·국적 불문, 사상·종교의 불구속, 정치 비개입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원아시아재단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공동체론’은 우선적으로 아시아 타국에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협력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는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자, 실무자 등을 초빙하여 윤강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시아공동체론 강좌의 경우, 주변국인 일본·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주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다른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또한 ‘아시아공동체론’은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정책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심층적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경우, 이 문제를 앞서서 심하게 겪고 있는 일본의 정책적 사례 이해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는 아시아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거창한 이론 같은 것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공동체론’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타국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돕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한국의 발전을 위한 넓은 시야와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교의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은 학생들이 아시아의 협력 및 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아시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상 깊은 수업>

워싱턴 대학교의 하용출 교수님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사들을 초빙하여 진행된 ‘아시아공동체론’ 수업 중 제 뇌리에 가장 뚜렷하게 각인된 것은 미야자와 히로시 선생님의 유학 강의(유교적 근대론과 일본사 연구)였습니다. 미야자와 선생님의 강의가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역사인식의 의문을 깰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공부하면서 왜 유학이 중국과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국사 교과서에는 임진왜란 직후 일본에 끌려간 강항(이황의 직계 제자)과 그의 제자들이 일본 내 성리학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언급은 없습니다. 세계사 교과서 역시 유학이 일본 사회에 준 영향에 관한 상세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페리 제독의 개항 이후 서양 학문이 도입되면서 일본이 급격히 발전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빠진 듯한 모호한 서술 때문에 저는 서양 학문이 일본에 영향을 끼치기 전, 분명 유학이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일본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해 왔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최근 일본 유학에 관한 새로운 연구이론을 들으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학(성리학)은 분명 일본 사회 변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학을 공부하고 나서 개혁적 문제 의식을 갖게 된 하급 무사층의 의식 성장이, 700여 년을 이어온 일본의 막부 정권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봉건 제도가 혁파된 일본은 개항 이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국·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유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일본의 학문적 국부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탄압으로 인해 일본 내 유학의 역사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학계에서 유학의 사회 영향에 대한 재조명이 벌어지고 있고, 한중일 공동 유학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유학이 한중일을 연결하는 충분한 문화적 연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셈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얻은 지적 희열감 때문에 상당히 흥분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학생들도 유학 강의라길래 사전에 지루할 것이란 편견을 가졌지만 굉장한 몰입을 했었고 수업이 끝난 후 얻은 게 많다고 말을 전하더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아시아공동체론’과 관련해서는 **백견이 불여일문**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교과서든 신문이든 해외의 소식에 대해 멀리서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 해외 저명한 석학들의 강연을 직접 듣는 것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일경제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류 신문들은 각종 타이틀을 붙여 비하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시아공동체론’에서 강연하신 다양한 일본 경제 석학들과 한일경제포럼의 발제자분들께서는, 20년을 넘게 끌어온 일본의 경제 불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점에서(평균 임금 상승 및 고용개선) 양호한 평가를 주었습니다. 이렇듯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보다 효과가 월등한 유명 석학들의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지적 소양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공동체론’은 분명 타 수업과는 다른 차별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평가방식>에 관하여

‘아시아공동체론’은 중간·기말 지필고사를 통한 평가가 아닌 매주 강의를 듣고 그에 대한 일정 분량의 수기 레포트 제출과, 강의에 관한 적극적인 질문 및 참여가 반영됩니다. 매주 과제물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약 70% 및 논평 30%의 일정한 형식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유 형식의 레포트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회사에 가더라도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일정 분량으로(특히 1p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즉 주어진 분량 안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설명하는 것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딜 가도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강의노트에 있는 내용 + 강의 필기 + 이와 관련된 사례 등을 찾아보고 이를 조합하여 작성했습니다. 요약을 할 때는 강의노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저만의 언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풀어서 썼습니다. 논평 같은 경우는 정(강의) + 반(강의와 관련된 주제 연관 지식 검색을 통한 추가내용) = 합(이를 종합 분석 후 결합한 정책을 내놓거나 양비론적 시각에 구애받지 않는 제3의 의견)의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내년엔 2회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하는 수강생들도 요약 및 논평을 할 때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기>

2015년 12월 9일 아시아공동체론의 마지막 수업은 제 인생에 있어 아주 오랫동안 기억

될 날일 것 같습니다. 저의 마지막 정규학기였던 2015년 2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본 결과, 역대 모든 수업 중 가장 많은 여운을 주었던 수업이 바로 국제학부 주관 ‘아시아공동체론’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은 다른 수업들과는 달리 매주 강의자가 바뀌는 ‘윤강 형식’의 색다른 강의를 지향하여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겪어 본 100명이 넘는 대단위 수업 중 ‘아시아공동체론’ 만큼 학생들의 몰입과 집중이 컸던 수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굉장한 열의를 갖고 수업에 임했고, 강의 후 이어지는 질문에 관련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갔었습니다. 유명 석학들을 초빙한 대단위 수업에서 본교 학생들이 우수한 집중력과 열정을 보여주어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장학금과 A+ 학점을 위한 것이 아닌 강의 자체에 집중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학문에 대한 참된 열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공동체론’ 강좌가 내년 2회를 넘어서 앞으로도 본교에서 계속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으면 합니다.